

비행청소년의 사회적 지지망에 관한 연구

나 동 석*

- I. 연구의 필요성
- II. 연구방법과 절차
- III. 조사결과
- IV. 논의 및 결론

I. 연구의 필요성

개인의 문제해결을 위해서 개인이 소유한 퍼스날리티를 중심으로한 접근도 중요하지만 개인이 지니고 있는 대인관계로부터의 자원활용도 중요한 접근이 될 수 있다. 개별사회사업의 창시자인 Richmond(1917)도 대인관계를 비롯하여 지역사회 자원을 포함한 환경적 요소를 중요시하는 망개입 *network intervention*에 관하여 언급하였으나 지금까지 활용되지 못하다가 최근에 이르러 사회사업실천을 위한 쟁점으로 부상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Coulshed는 사회사업의 미래에서 개인을 둘러싼 환경은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변화를 위한 도구뿐만아니라 표적으로도 활용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환경에 대한

관심이 1970년대 초기에 다시 강하게 나타난 것은 Germain(1973)이 「케이스워 실천에서 생태학적 관점」이란 논문을 발표하면서 관심을 갖게 되었다. 여기에서 개인이 갖고 있는 대인관계가 환경적 요소로서 간주될 수 있는데 대인관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사랑, 용기, 격려와 같은 질적인 특성을 포함하여 사회적 지지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대인관계를 사회적 지지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Germain(1973, 1984)은 사람들의 생활을 개인과 환경간의 교환으로 보고 있는데 이러한 교환과정에서 순조롭지 못하여 어려워지면 이는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결과적으로 인간의 신체적, 심리적, 행동적 측면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스트레스 결과를 줄이거나 감소시키기 위해서 동원될 수 있는 한 가지의 자원으로서 사회적 지지를 활용하여 사람들의 정서관리에 필수적인 사회적 자원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이다.

*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교수

사회적 지지를 사회사업실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관점은 그동안 사회사업실천에서 지배하여온 질병모델을 채택한 것이 아니라 생활모델을 받아들임으로서 가능할 수 있다. 그동안의 사회사업실천에서 사회적 지지를 스트레스 결과를 완화시키는 수단적 도구로서 인정되어 왔으나 적용대상을 제한하여왔고 사회적 지지의 원천은 자연적인 사회적 지지망에 의존함으로써 개인의 사회적 지지력을 향상시키거나 개발 또는 동원을 통한 적극적 활용은 시도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동안 사회적 지지개입의 대상으로서 잘 언급되지 않은 비행청소년을 특히 보호관찰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하였다.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비행 행동은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대처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비행청소년에게는 가족에서의 스트레스가 크게 작용하게 되고 그리고 비행행동으로 인한 구속과 같은 사건이 스트레스로 지각되면서 가족에서 부모자녀관계에 영향주어 스트레스에 또 다시 휩싸이는 등 보호관찰 비행청소년에게는 일반 청소년의 경우보다 스트레스가 높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행동을 더욱 공격적으로 만들거나 위축되게 하여 보다 건전하고 발달적인 청소년으로 향하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비행청소년이 지각한 스트레스가 스트레스 결과인 정서적 복리 *psychological well-being*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중재효과를 보이고 있는가 그리고 사회적 지지의 유형과 원천에 따라서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그리고 이들을 사회에 적응시키기 위하여 사회사업실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의 개입전략

방법을 무엇이 있을 수 있는가를 문제로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제기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의 목적으로서 첫째로 연구대상인 보호관찰 비행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지각된 스트레스, 우울성향 그리고 사회적 지지와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둘째로 사회적 지지가 보호관찰 비행청소년의 스트레스를 변화시키는 영향력이 있다면 클라이언트의 문제해결을 위한 구성요소인 심리적 복리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회적 대처자원의 하나로서 사회적 지지의 동원과 개발, 그리고 지지력을 강화시키는 전략방법은 무엇이 있겠는가를 알아 보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위에서 문제제기된 사회적 지지 개입을 위한 프로그램은 제외하기로 한다.

II. 연구방법과 절차

1. 연구대상의 선정

일상생활에서의 스트레스와 우울간에 사회적 지지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보호관찰받고 있는 비행청소년을 본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보호관찰 비행청소년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자신의 비행행동으로 인한 구속된 스트레스사건을 경험하였고, 또한 일상적으로도 자신의 생활속에서 지각한 스트레스의 결과로 부적응적 행동증세를 보여주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계속 축적되는 과정속에 놓여진 상태이다.

둘째로, 일반적으로 보호관찰 받는 비행청소년의 처우는 처벌에 대한 사회복귀적 이상 *rehabilitative idea*의 관점에서 이해되어 다루어지기 때문에 비행행동의 문제해결을 위해서

심리적 정서의 관리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보호관찰대상은 대체적으로 초범에 속하며 경미하거나 우발적인 사건 즉, 약물남용(본드나 부탄가스 흡입 등), 폭력, 유흉비 마련을 위한 절도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보호관찰 비행청소년을 위한 치료적 접근은 정도가 심한 청소년에 비해서 용이하며 사회적 지지개입을 통해서 정서 관리와 행동수정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로, 비행청소년은 비행행동의 유발요인으로써 우울과의 관련이 많다는 연구보고가 있다. 청소년 비행과 우울성향의 관계는 일반청소년에 비해서 비행청소년이 높으며 대체적으로 우울한 청소년들이 비행행동을 많이 보여준다. 이들의 부모는 엄격하고 내면화된 가치체계로 자녀와 상호작용함으로써 비행청소년들은 상당한 우울성향을 보여주고 이러한 우울한 감정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비행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청소년비행에서 가족생활로부터 야기된 스트레스요인과 결과인 우울성향 그리고 중재변인으로 사회적 지지를 연구함에 있어서 그 표본대상은 보호관찰 비행청소년 중에서 수강명령 대상자이다. 1991년 1월부터 보호관찰법에 따라 비행청소년에 대한 수강명령제도를 도입하여 서울시립동부아동상담소에서 사회사업가의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였다. 이곳에서는 보호관찰소와의 위탁계약에 의해서 '희망교실'을 개설하여 가정법원으로부터 50시간 수강명령 비행청소년을 한 기에 15명-20명 정도를 대상으로 2-3주마다 계획된 프로그램에 따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각 기의 특성에 따라 약간의 프로그램과 그 내용을 달리하고 있다.

연구절차는 설문지조사와 면접조사를 병행하였으며 시행은 연구자가 직접하였고 경우에 따라 프로그램담당 사회사업가의 협조를 받았다. 우선 입교 첫날에 설문지를 통해 조사하고 교육의 마지막 날인 5일째에 사회적 지지의 개입에 대한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우울성향 부분의 재조사와 희망교실을 통한 도움을 설문조사하였다.

이러한 설문의 조사도구는 희망교실에서 그동안 실시한 각기의 보고서를 내용분석한 자료를 참고하고 기존의 문헌조사를 중심으로 하여 작성되었고 또한 이론적 모형에 따른 변인들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설문지를 구성하여 실시하였다. 질문지의 구성은 구속시부터 현재 입교일까지 청소년들이 경험한 지각된 스트레스의 정도, 대인관계로부터 받은 사회적 지지 평가, 사전우울성향, 사후우울성향 그리고 교육을 통한 공식적 사회적 지지의 평가(도움의 정도의 평가) 등이 포함된다. 질문지의 응답시간은 사전조사와 사후조사를 합하여 모두 30-40분 정도 소요되며 조사 분석하게 될 대상은 1991.6.24-1991.11.7까지 9차례에 걸쳐 의뢰된 142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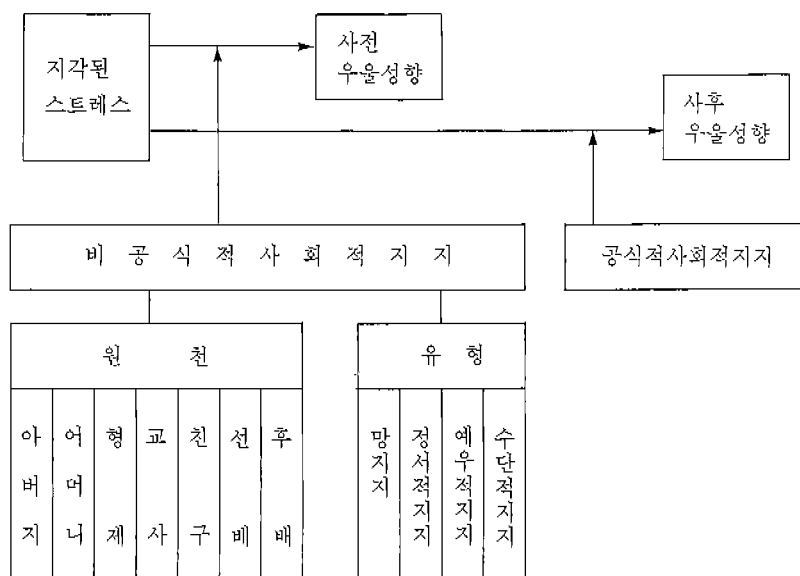
2. 연구 모형

본 연구는 청소년의 비행으로부터 야기된 스트레스에 대하여 사회적 지지가 완화효과를 보이는가를 실증적으로 알아보고, 이러한 결과가 공식적인 사회적 지지프로그램의 결과와는 어떤 경향을 갖는가에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한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본 조사의 설계방법은 단일사례 임상설계방법 *single subject clinical design method*을 용

〈그림 1〉

연구모형



용하여 채택하였다. 그 이유는 조사대상자는 강제적인 5일간의 50시간 수강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연구설계를 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사정때문에 집단을 분리할 수 없었다. 그리고 일정한 기간을 두어 변화시기에 측정하는 것도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제한점을 고려하여 응용한 방법을 적용하였다. 물론 ABAB 설계가 전통적 방법으로써 핵심적이지만 이를 변형하여 ABC-AB'C' 방법을 채택하였다. 여기에서 A는 프로그램 제공 전에 청소년이 지각한 스트레스를 의미하며 B는 비공식적 사회적 지지, C는 프로그램 제공전에 측정한 사전우울성향을 의미한다. B'는 프로그램에서 제공되는 공식적 사회적 지지, C'는 프로그램제공 후의 사후우울성향을 뜻한다. 즉, ABC와 AB'C'의 비교를 통하여 A의 C에 대한 B의 효과와 A의 C'에 대한 B'의 효과에 대한 유사한 경향성을 파악함으로써 B에 대한 B'의 효과

성을 밝히기 위하여 설계하였다.

3.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될 측정도구의 타당도는 내용에 초점을 두었으며 기존의 문헌과 관련 연구자의 의견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첫째부분은 비행청소년의 생활에서 나타나는 청소년의 일상적 생활스트레스로써 가족관계에서 오는 부모자녀관계 스트레스, 가족분위기 스트레스, 가족생활 사건 그리고 이번의 비행행동으로 인한 개인적 스트레스로 분류하였고 이러한 문항은 기존의 문헌에서 타당성이 입증된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둘째부분은 매개변인으로써 사회적 지지에 관한 질문이다.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에 대한 원천을 중심으로 구별하였으며 그 분류는 가족 내부에서 아버지, 어머니, 형제, 가족 외부에

서는 교사, 친구, 선배, 후배 등으로 나누었으며 각각의 원천에 따라 사회적 지지에 대한 유형을 망 지지, 정서적 지지, 예우적 지지, 수단적 지지로 나누었다.

셋째부분은 중속부분인 우울성향을 측정하기 위해서 역학연구센터의 우울증척도 *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CES-D*를 사용하였는데 20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졌으며 현재의 우울증상을 측정하는데 사용된다. Radloff는 CES-D를 요인분석하여 4가지 요인으로 추출하여 요인의 이름을 신체둔화적 활동 *somatic-retarded activity*, 우울정동 *depressed affect*, 긍정적 정동 *positive affect*, 대인관계 *intepersonal relations*로 명명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이를 따르기로 하였다.

넷째부분으로써 공식적 사회적 지지는 기관에서 청소년에게 자기보고식으로 조사한 평가서를 바탕으로 하여 11개 문항으로 작성하였다. 그리고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크론바하의 알파값(α)으로 알아보았는데 스트레스 .6638, 비공식적 사회적 지지 .8819, 사전우울성향 .8317, 사후우울성향 .8425, 공식적 사회적 지지 .7996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값을 보여주고 있다.

4. 자료 처리

조사설문지의 척도구성은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다. 청소년의 생활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의 경우 5점 척도로 처리하였고, 우울성향은 3점 척도로 처리하였다. 그리고 자료의 통계적 처리는 SPSS/PC+를 사용하였으며 분석방법은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빈도분석 *frequency analysis*, 일반적 특성과 관련변인

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 *one-way ANOVA*의 기법을 이용하였으며 유의수준은 $p < 0.05$ 로 정하였다.

III. 조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실증적 검증을 위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우선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령은 16세 이하에서 19세 이상까지 분포되어 있고 17세 35.2%, 16세 이하 25.4%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학력은 고등학교 중퇴 33.1%, 중학교 중퇴 26.1%, 고졸 25.4%, 중졸 15.5%의 순으로 조사되었는데 하나의 특징으로써 파악된 것은 학교중퇴자가 59.2%나 차지하고 있어 학교중퇴자에 대한 대책은 비행행동에 대한 예방의 관련성을 시사하고 있다. 그리고 종교적 특성으로 65%가 종교를 갖고 있으며 35% 정도는 종교를 지니지 않고 있는데 이 중에서 기독교가 46.5%로써 조사대상자의 절반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의 가족배경을 살펴보면 우선 형제수가 상당히 많은 것을 주목할 수 있는데 3명이 29.6%로 가장 많고 1-2명을 30%정도이며 5명 이상의 경우도 25%정도이다. 부모학력을 보면 우선 부학력은 고졸 33.1%, 모학력은 중졸 45.1%를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반수 이하가 중졸 이하의 학력을 소지하고 있다. 가족의 월소득을 보면 50만원 이하가 19.7%, 100만원 이상도 42%정도를 보여주고 있어 소득은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빈곤가정에서 비행청소년이 많이 발생된다는 입장과 다른 점을 시사하고 있다. 부의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	분	빈도	%	누적%	구	분	빈도	%	누적%
연 령	16세이하	36	25.4	25.4	형 제 수	1명	10	7.0	7.0
	17세	50	35.2	60.6		2명	32	22.5	29.6
	18세	33	23.2	83.8		3명	42	29.6	59.2
	19세이상	23	16.2	100.0		4명	24	16.9	76.1
학 력	중졸	22	15.5	15.5		5명이상	34	23.9	100.0
	중중퇴	37	26.1	41.5	부 학 력	국졸	39	27.5	27.5
	고졸	36	25.4	66.9		중졸	45	31.7	59.2
	고중퇴	47	33.1	100.0		고졸	47	33.1	92.3
종 교	기독교	66	46.5	46.5		대졸	11	7.7	100.0
	천주교	5	3.5	50.0	모 학 력	국졸	45	31.7	31.7
	불교	21	14.8	64.8		중졸	64	45.1	76.8
	무종교	50	35.2	100.0		고졸	32	22.5	99.3
약 물 사 용 정 도	없음	58	40.8	40.8		대졸	1	.7	100.0
	1가지	69	48.6	89.4	월 소 득	50만원이하	28	19.7	19.7
	2가지이상	15	10.6	100.0		51-75	29	20.4	40.1
흡 연 정 도	없음	11	7.7	7.7		76-100	26	18.3	58.5
	적은편	67	47.2	54.9		101-125	32	22.5	81.0
	많은편	64	45.1	100.0		125-150	13	9.2	90.1
음 주 정 도	없음	14	9.9	9.9		150만원이상	14	9.9	100.0
	적은편	38	26.8	36.6	부 직 업	무직	23	16.2	16.2
	많은편	90	63.4	100.0		노동	41	28.9	45.1
합계		142	100.0			서비스직	32	22.5	67.6
						자영업	32	22.5	90.1
합계						관리직	8	5.6	95.8
						전문직	6	4.2	100.0

직업을 보면 대체적으로 무직이나 노동직이 45%나 차지하고 있어 대체적으로 뚜렷한 직업이 없음을 시사하고 있다. 조사대상자는 보호 관찰중 이기에 비행행동의 속성을 약물사용, 음주, 흡연으로 파악한 결과 이들의 약물사용

의 경험은 60%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로 40% 정도가 본드흡입, 부탄가스 등을 주류로 사용하고 있으며, 흡연과 음주도 각각 92.3%, 90.2%를 하고 있고 이 중에서 흡연사용에 있어서 적거나 많은 정도는 비슷하나 음

주는 대체적으로 많이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 일반적 특성과 관련변인과의 관계

1) 스트레스와의 관계

비행청소년의 스트레스는 청소년의 개인적 및 가족적 특성과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일원 변량분석을 통해서 특성간의 차이를 살펴 보았다. 개인이 지니고 있는 특성이나 상황에 따라 스트레스를 인지하고 지각하는 정도는 다르기 때문에 비행청소년의 스트레스는 어떤 요인과 관련되는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청소년의 스트레스는 일반적 특성 가운데 청소년의 약물사용 정도와 어머니의 학력수준을 제외한 모든 특성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스트레스는 일반적으로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자극과 반응이 상호작용하는 관계론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스트레스는 청소년에게서 일반적 특성과 관련하여 지각하는 차이를 보여주지 않았다.

비행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전체적으로 관련되는 비행속성의 하나로써 <표 2>를 보면 청소년의 약물사용 정도에 따라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p=.011$). 즉 약물사용을 주로 본드나 부탄가스 정도만을 사용하는 청소년($M=39.73$)은 여러가지의 약물을

경험하거나($M=35.51$), 전혀 경험이 없는 청소년($M=35.13$)보다 매우 높은 편이다. 본드의 경우는 주로 초보적인 수준이기때문에 여러가지를 사용하는 주로 습관적인 사용자보다는 스트레스를 더 지각한다고 할 수 있겠다. 스트레스의 하위유형에 따라 살펴 보면 잘 알 수 있는데 이들은 주로 가족스트레스와 관련되어 있다.

<표 3> 모학력별 청소년 스트레스의 차이

모학력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P
국 졸	45	40.20	8.394	4.049	.019
중 졸	64	37.21	8.952		
고 졸	32	35.00	5.382		

<표 3>을 보면 청소년의 스트레스는 어머니의 학력에 따라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는데($p=.019$), 어머니의 학력이 낮을수록 청소년의 스트레스는 높은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를 더 구체적으로 보면 가정의 분위기 스트레스에서 더욱 높게 나타나고 있다($M=9.68$). 어머니가 가정의 정서적 관리를 담당할 때 모학력이 낮을수록 다소 산만되고 갈등적인 역기능적 측면을 조장함으로써 청소년의 스트레스 수준은 높게 나타나고 있다.

2) 우울성향과의 관계

스트레스를 지각하고 난 후의 스트레스 결과는 일반적으로 신체적·심리적·행동적 양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심리적 측면에서의 대표적인 결과는 우울성향을 보여주지만, 3가지간에는 서로 상호관련적으로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심리적 결과인 우울성향들을 해소

<표 2> 약물사용정도별 청소년 스트레스의 차이

약물사용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P
없음	58	35.51	7.706	4.644	.011
1가지	69	39.73	8.094		
2가지이상	15	35.13	7.473		

하지 못하고 계속 누적된다면 신체적으로 혹은 행동적으로 영향을 주게 된다.

〈표 4〉 학력별 우울성향의 차이

학력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P
중 졸	22	23.13	6.937	4.594	.004
중 중 퇴	37	17.62	7.281		
고 졸	36	16.25	7.299		
고 중 퇴	47	20.44	8.589		

청소년의 스트레스 결과인 우울성향은 청소년의 개인적 및 가족적 특성과 차이를 나타내는 변인으로써 청소년의 학력, 약물사용정도에 따라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청소년의 학력 수준을 살펴보면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소년의 학력에 따라 청소년 우울성향의 유의한 차이는 $p=.004$ 수준에서 학력과 밀접한 관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개인의 지각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로써 항상 활용되어 왔으며 정신건강 측면에서도 의미있게 받아들이고 있다. 청소년의 우울성향은 중졸의 경우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M=23.13$), 고졸의 경우에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M=16.25$). 특히 중졸과 중중퇴간의 차이는 고졸과 고중퇴간의 차이보다 훨씬 더 큰 폭의 차이를 나타냈다. 우울은 상실에 대한 반응, 일상생활의 사건 등으로 인한 결과로 볼 수 있는데 우울의 증상은 사람들의 신체적·정서적·행동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청소년의 경우에 신체적으로 둔화된 활동과 관련된 우울성향($F=7.574$, $p=.001$)이 청소년의 학력과 의미있는 차이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정서적인 우울정동적 우울성향도 차이가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F=2.671$, $p=.049$).

〈표 5〉 약물사용정도별 우울성향의 차이

약물사용정도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P
없음	58	16.67	7.168	4.943	.008
1가지	69	20.40	8.307		
2가지이상	15	22.13	7.443		

청소년의 우울성향을 약물사용정도에 따라 〈표 5〉에서 보면 정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p=.008$). 즉 약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사용하지 않는 경우보다 우울성향이 높고 또한 여러가지의 약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한 가지 사용하는 경우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3) 비공식적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

이 연구에서는 대인관계로부터 얻어지는 경우에 한정하여 비공식적 사회적 지지를 파악하였다. 또한 청소년이 지지를 받아들이는 지각의 정도는 개인의 주관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는 청소년의 개인적·가족적 특성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표-6〉 연령별 아버지의 사회적 지지의 차이

연령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P
16세이하	36	26.47	7.295	8.641	.001
17세	50	29.10	6.273		
18세	33	26.27	9.963		
19세이상	23	18.69	9.938		

사회적 지지를 원천과 유형에 따라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과의 관계를 가족의 내부와 외부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우선적으로 가족의 내부를 중심으로 아버지, 어머니, 형제의 지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연령에 따라 아버지의 사회적 지지를 <표 6>에서 보면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P=.001$), 17세에서 지지정도의 수준을 높게 지각하고 있고 19세 이상에서는 지지가 낮은 편이며, 16세 이하와 18세에서는 중간수준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보여주고 있다. 19세 이상은 어느 정도 독립하여 사회생활하는 시기이며 이때까지 청소년이 비행행동을 보일 때 아버지의 기대에 못미치고 관심을 덜 갖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사회적 지지의 유형에 따라 모든 유형에서 전체적으로 보여주었던 양상과 같은 유사한 차이를 제시하고 있다.

다음은 아버지의 직업에 따라 청소년이 지각하는 아버지의 사회적 지지는 차이가 있는가를 <표 7>에서 알아보면 아버지의 직업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난 것으로 판명되어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p=.001$). 직업의 분류에 따라 살펴보면 아버지가 관리직을 하는 청소년은 아버지의 사회적 지지를 가장 많이 받는 것을 알 수 있고($M=31.25$), 다음으로는 자영업과 전문직의 순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노동직과 서비스직의 경우에는 조금 낮은 경향을 보여주고 무직의 아버지로 부터는 지지의 수준을 상당히 낮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미루어 볼 때 아버지의 직업이 자영업과 전문·관리직 일수록 지지를 강하게 받아들이고 직업이 없으면 사회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청소년을 지도하면서 알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가 무직인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어머니가 직업을 갖고 있으며 대체적으로 파출부, 서비스직, 노동 등에

<표 7> 부직업별 아버지의 사회적 지지의 차이

부직업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P
무 직	23	17.04	11.299	9.291	.001
노동	41	26.87	6.631		
서비스직	32	25.50	7.215		
자영업	32	30.37	6.714		
관리직	8	31.25	6.251		
전문직	6	28.83	6.941		

서 일하고 계신다.

이상으로부터 볼 때 아버지의 사회적 지지와 이에 따른 유형에서 직업간의 차이를 찾아볼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관리직의 아버지로 부터 사회적 지지를 가장 많이 받는다고 했으나 유형적으로 보면 아버지의 직업이 달리 나타나고 있는데 전문직의 아버지는 수단적 지지, 관리직의 아버지는 망지지와 예우적 지지 그리고 정서적 지지는 자영업의 아버지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무직은 지지유형의 모든 경우에서 전혀 다를 바 없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의미하는 바를 분석해야 하며 프로그램대책에 대한 함축을 제공하고 있다.

청소년의 아버지로 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는 아버지의 학력에 따라 <표 8>에서 살펴보면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p=.005$). 즉 고졸의 아버지로 부터 받는 지지의 수준이 가장 높았으며 대졸을 제외하면 학력이 낮을수록 아버지의 지지수준은 낮아지고 있다. 아버지의 학력에 따라 대체적으로 직업이 결정된다고 생각할 때 아버지의 직업에 따라서도 아버지의 사회적 지지가 차이를 보여주었듯이 학력에 따른 아버지의 지지유형도 모든 지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고 전체적인 양상과 유사한

〈표 8〉 부학력별 아버지의 사회적 지지에 대한 차이

부학력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P
국 졸	39	22.15	8.827	4.353	.005
중 졸	45	26.60	8.211		
고 졸	47	28.68	7.785		
대 졸	11	26.90	10.967		

〈표 9〉 모학력별 아버지의 지지유형에 대한 차이

모학력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P
국 졸	45	23.84	8.132	3.841	.023
중 졸	64	26.35	8.964		
대 졸	32	29.28	8.033		

경향을 보였다.

아버지로부터의 사회적 지지를 지각하는 정도는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라 의미있는 결과를 보였다. 그리고 어머니의 학력수준에 따른 차이를 〈표 9〉에서 보면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p=.023$),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아버지의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버지의 지지유형을 볼 때 망 지지 ($F=5.104$, $p=.007$)와 정서적 지지 ($F=3.724$, $p=.026$)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나머지 예우적 지지 및 수단적 지지에서는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어머니의 학력이 높으면 아버지와 접촉의 기회가 많이 제공되고 청소년과 어느 정도 대화를 한다고 알 수 있으며 이는 대체적으로 부부간의 학력수준이 비슷하게 결합된다고 볼 때 부학력에 따라서 아버지의 사회적 지지를 받는 정도는 지지의 모든 유형에서 유의한 의미를 찾을 수 있으나 어머니의 학력에 따라서는 접촉해서 들어주

〈표 10〉 월소득별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에 대한 차이

월소득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P
50만원이하	28	27.78	8.791	2.382	.041
51-75	29	27.72	7.497		
76-100	26	29.69	4.970		
101-125	32	31.96	6.428		
126-150	13	32.15	5.956		
151만원이상	14	32.71	6.809		

는 정도만 차이가 나고 있다.

청소년의 어머니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는 다른 특성은 전혀 나타나지 않지만 월소득에 따른 차이를 〈표 10〉에서 보면 $p=.04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즉 월소득이 낮을수록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수준은 낮다고 청소년은 지각하고 있고 특히 75만원 이하는 상당히 낮다. 빈곤가족의 가족내 사회적 지지의 향상을 위한 기술교육 및 훈련의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시사를 제안하고 있다.

또한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는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과는 전혀 관련성을 찾아볼 수 없는 데 이는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는 청소년의 속성과 관련없이 골고루 지각하여 받아들인다고 해석할 수 있다.

가족의 구성원은 일차적으로 부모와 자녀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할 때 청소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관계는 부모자녀관계와 형제관계가 있을 수 있다. 형제는 조사대상의 청소년이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대개적 변수로 작용하여 도움을 줄 수 있고 장애의 요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가족의 사회적 지지를 파악할 때 형제의 사회적 지지는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기에 형제의 사회적 지지를 살펴보고자 한

〈표 11〉 형제수별 형제의 사회적 지지에 대한 차이

형제수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P
2명	32	27.81	3.987	3.899	.011
3명	42	31.04	5.226		
4명	24	27.25	5.495		
5명이상	34	29.73	5.610		

다.

형제의 사회적 지지는 형제수에 따라 차이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분석 대상에서는 형제가 없는 경우에는 상호작용적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형제가 없는 10개의 표본을 제외하여 2명 이상으로 한정하여 분석하였다. 형제수에 따른 형제의 사회적 지지를 〈표 11〉에서 보면 전체적으로는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발견할 수 있는데($p=.011$), 3명이 있는 형제 속에서 형제의 사회적 지지는 높으며($M=31.04$), 4명이 있는 경우는 낮은 편이다($M=27.25$). 결과적으로 3명의 경우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며 4명의 경우에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 여기에서 3명 형제의 경우 삼각관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 서로 지지할 수 있으며 4명 형제의 경우에는 쉽게 양분되어 그만큼 형제의 지지수준이 낮아진다고 할 수 있다. 이는 2명 형제의 평균보다도 낮은 경향을 봐서도 알 수 있다. 5명 형제의 경우 그만큼 형제관계의 선택폭이 넓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다.

형제의 사회적 지지를 유형으로 분류하여 차이가 있나를 분석한 결과 망 지지($F=3.810$, $p=.011$), 정서적 지지($F=2.690$, $p=.049$), 예우적 지지($F=2.899$, $p=.037$)에서는 형제수에 따라 지지의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지만 수단적 지지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여기에서 중요

한 의미를 시사하는 바는 망의 크기에 따라 사회적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하지만 형제의 크기에 따라서 서로를 아껴주고 도와주는 정서적 지지, 서로 존중하고 인정해주는 예우적 지지는 전체적인 양상과 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비해서 새로운 정보나 사실을 주고 받는 수단적 지지에서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지지 망의 크기에 따라 사회적 지지의 정도는 비례하지 않음을 알 수 있으며 지지망의 적절한 크기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형제의 사회적 지지를 아버지의 직업에 따라 〈표 12〉에서 살펴보면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p=.002$), 서비스직·노동·자영업에서 높은 편으로 나타나고 무직과 관리직은 중간수준이며 전문직 아버지의 청소년들이 받는 형제의 사회적 지지는 아주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에서 서술한 아버지의 사회적 지지는 아버지의 직업에 따라 관리직의 경우가 높았으나 형제의 사회적 지지는 노동이나 서비스직에서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형제의 사회적 지지유형에서 보면 모든 유형 즉 망 지지($F=3.569$, $p=.004$), 정서적 지지($F=2.369$, $p=.042$), 예우적 지지($F=2.658$, $p=.025$) 및 수단적 지지($p=.020$)는 통계적 유

〈표 12〉 부직업별 형제의 사회적 지지에 대한 차이

부직업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P
무 직	23	28.21	6.438	3.926	.002
노 동 직	41	29.56	4.266		
서비스직	32	29.31	4.700		
자 영 업	32	29.25	5.891		
관 리 직	8	28.25	6.734		
전 문 직	6	18.83	12.139		

의성을 발전할 수 있어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는 대인관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데 일차적으로는 가족의 사회적 지지가 의미있지만 가족의 외부에서 받아들이는 사회적 지지도 중요하다. 청소년이 가족의 외부에서 맺고 있는 대인관계는 학교, 직장, 단체 등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학교의 교사와 또래집단인 친구 그리고 집단이나 단체속에서 활동하면서 이루어진 선배와 후배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표 13〉 학력별 교사의 사회적 지지에 대한 차이

학력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P
중 졸	22	19.09	8.228	12.345	.001
중 중 퇴	37	13.27	5.595		
고 졸	36	22.69	6.273		
고 중 퇴	47	16.95	7.186		

우선 교사의 사회적 지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현재 학교를 다니지 않는 경우에는 다닐 당시를 고려하도록 했고 소년원의 교사도 포함하여 답하도록 요구하였다. 〈표 13〉을 보면 교사의 사회적 지지는 청소년의 일반적 속성 중에서도 학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p=.001$), 고졸의 경우에서 교사의 사회적 지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M=22.69$). 이는 학업의 성취도와 관련해서 교사의 사회적 지지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이어서 중졸($M=19.09$), 고중퇴($M=16.95$), 중중퇴($M=13.27$) 순으로 나타났는데 졸업한 경우는 높지만 중퇴의 경우는 낮은 편이며 고졸과 중중퇴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교사의 사회적 지지를 유형별로 나누어 청소년의 학력에 따라 살펴보면 4가지 유형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망 지지에서는 고졸, 고중퇴, 중졸, 중중퇴의 순으로 그 경향을 보이면서 통계적 유의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F=7.995$, $p=.001$), 학업의 기간에 따라 교사와의 접촉을 일반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

교사의 정서적 지지 역시 청소년의 학력에 따라 의미있는 차이를 보여주었다($F=5.116$, $p=.002$). 이러한 경향은 망 지지와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교사의 정서적 지지 역시 청소년의 학업성취도에 따라 청소년을 이해하고 도와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 외에 예우적 지지($F=13.472$, $p=.001$)와 수단적 지지($F=7.20$, $p=.001$)도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으며 전체적인 모습과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교사의 사회적 지지유형 중에서 망 지지는 특히 아버지의 직업에 따라서도 유의한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데 ($p=.005$), 아버지의 직업이 자영업 및 관리직일수록 망 지지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른 일반적 특성과는 전혀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가족 내에서 아버지의 사회적 지지가 여러가지의 특성과 관련하여 의미를 보여주는 관련성을 지니고 있는 반면에 가족외부에서는 아버지상과 대치될 수 있는 사람은 교사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했을 때 의미있는 변수의 수는 아버지의 사회적 지지가 많았기 때문에 가족의 지지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청소년의 생활에 있어서 친구나 선배는 중요한 사회적 지지의 원천으로 작용되고 있다. 이는 가족의 형제들과 대치적으로 작용될 수 있으리라 본다.

청소년의 생활에 있어서 친구나 선배는 중요한 사회적 지지의 원천으로 작용되고 있다. 이는 가족의 형제들과 대치적으로 작용될 수 있으리라 본다.

〈표 14〉 부학력별 친구의 사회적 지지에 대한 차이

부학력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P
국 졸	39	31.28	4.370	5.847	.001
중 졸	45	30.64	4.617		
고 졸	47	33.46	5.128		
대 졸	11	36.00	2.898		

〈표 14〉에서 보면 아버지의 학력에 따라 청소년은 친구의 사회적 지지를 받아들이는데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001$), 학력이 높을수록 친구의 지지수준은 높은 편이며 학력이 낮을수록 지지의 수준은 낮은 편이다. 이러한 양상은 친구의 지지유형에 따라서도 대체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고 그 양상도 비슷하다.

아버지의 학력에 따라 청소년들은 친구들의 사회적 지지를 지각하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부모는 일반적으로 유사한 학력 수준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어머니의 학력에 따라서도 청소년은 친구의 사회적 지지를 받아들이는데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표 15〉에서 보면 어머니의 학력에 따라서도 친구의 사회적 지지가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으며($p=.001$), 아버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친구의 지지수준은 높은 편이며 학력이 낮을수록 지지의 수준은 낮은 편이다. 이러한 양상은 친구의 지지유형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표 15〉 모학력별 친구의 사회적 지지에 대한 차이

모학력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P
국 졸	45	30.46	4.595	9.627	.001
중 졸	64	31.92	4.752		
고 졸	32	35.09	4.298		

비행청소년에게 있어서 친구의 사회적 지지를 지각하는데 있어서 부모의 학력수준은 매우 중요한 지표로써 제시되며 앞으로 친구의 사회적 지지를 받아들이는데는 부모의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가정이 세워진다. 아마도 지지를 받아들이는 태도는 가정에서 습득하는 사회화의 수단이 되기 때문에 청소년의 부모는 가정에서 자녀양육에 대한 부모교육훈련이나 가족생활강화훈련을 위한 프로그램개발이 요구된다는 함축을 제시하고 있다.

〈표 16〉 음주정도에 따른 친구의 사회적 지지에 대한 차이

음주정도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P
없 음	14	29.35	4.986	3.591	.030
적 은 편	38	31.60	5.180		
많 은 편	90	32.84	4.563		

친구의 사회적 지지를 음주경험에 따라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음주는 한국사회에서 특별한 놀이문화의 부재 속에서 성인행동을 모방하는 비행청소년에게는 하나의 비행지표이기도 하다. 음주경험의 정도에 따라 친구의 사회적 지지를 지각하는 정도를 〈표 16〉에서 보면 $p=.03$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볼 수 있는데, 음주를 많이 할수록 지지수준이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사회적 지지를 상호교류하기 위해서는 만남이 우선적으로 전제되어야 하며 이러한 접촉이 알코올 매개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만남을 위한 보다 건전한 장소를 제공하고, 보다 건전한 매개적 놀이창출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사회적 유형에 따라서도 모두 의미있는 차이를 보여주고 있으며

양상 또한 전체적인 흐름과 같으나 특히 접촉의 가능성과 빈도를 나타내는 망 지지에 있어서 음주를 하지 않는 편($M=9.14$)이 가장 높게 제시되고 있다. 여기서 시사하는 바는 음주를 하지 않는 청소년은 친구들과 자주 만나지만 지지를 주고는 상호적 교류는 음주를 많이 하는 청소년이 높다는 점이다.

〈표 17〉 연령별 선배의 사회적 지지에 대한 차이

연령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P
16세이하	36	21.02	7.740	3.636	.014
17세	50	24.02	7.536		
18세	33	23.75	6.533		
19세이상	23	18.60	7.420		

다음은 선배의 사회적 지지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인간발달과정에 있어서 청소년기는 자아를 확립하고 주체성을 찾기 위하여 혼돈되고 방황하는 시기이며 어느 한 집단에 소속되기를 갈망하기도 한다. 집단내에는 동료만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선배와 후배간의 인간관계를 맺는다. 여기에서의 선배는 조직, 단체, 모임, 교회, 학교 등에서 연령적으로 나이가 자신보다 더 많고 청소년 스스로가 주관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즉 자신의 연령에 따라 선배의 사회적 지지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본 결과를 〈표 17〉에서 보면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p=.014$). 17세에서 선배의 사회적 지지는 가장 높으며($M=24.02$) 16세 이하를 제외한다면 연령이 높을수록 선배의 지지수준은 낮아진다. 16세 이하는 아직 대인관계의 폭을 집단을 통하여 넓히지 않는 연령으로 생각된다.

지지의 유형에 따라 살펴보면 정서적 지지

($F=3.592$, $p=.015$)와 수단적 지지($F=869$, $p=.038$)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망 지지나 예우적 지지는 차이가 없었다. 특히 정서적 지지에서는 17세가 높았지만 수단적 지지에서는 18세가 높았다. 즉 17세에서는 청소년 자신의 갈등과 고민을 선배가 들어 준다고 지각하고 있으며 18세에서는 과거에 많은 도움을 받은 경우가 높은 것으로 보아 어느 정도는 갈등을 해결되는 시기로 볼 수 있다.

〈표 18〉 음주정도별 선배의 사회적 지지에 대한 차이

음주정도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P
없음	14	15.42	5.109	7.025	.001
적은 편	38	23.00	8.147		
많은 편	90	23.11	7.120		

또한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는 조사대상자들이 비행의 경험을 많이 한다고 지적되면서 문제행동에 따라 선배의 사회적 지지를 알아보았다. 문제행동은 약물사용, 흡연, 음주 등의 사용여부 정도로 파악했으며 음주량의 정도에 따라 선배의 사회적 지지를 〈표 18〉에서 보면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p=.001$). 음주를 하는 경우에 선배의 지지수준이 높은 편이며($M=23.11$), 안하는 경우에서 낮게 나타나고 있다($M=15.42$). 이렇게 음주에 따라 선배의 사회적 지지가 차이나는 것은 지지를 위해서 만남의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며 음주를 적게 하거나 많이 하는 평균의 차이는 그다지 높은 편이 아니다.

음주는 정신역동적으로 구강기 성격을 지니고 의존성과 관련되어 가족에서 지지를 받지 못할 때는 가족 외부의 지지원천을 구하게 마

런이기 때문에 선배의 정서적 지지유형이 통계적 유의성을 보여준 것은 더욱 뒷받침되며($F=8.114$, $p=.001$), 특히 적게 하는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M=6.18$). 또한 선배의 예우적 지지($F=6.992$, $p=.001$)와 수단적 지지($F=5.580$, $p=.004$)도 음주량의 정도에 따라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표 19〉 약물사용정도별 후배의 사회적 지지에 대한 차이

약물사용경험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P
없음	58	20.10	7.023	3.677	.027
적은 편	69	22.02	6.507		
많은 편	15	24.93	3.239		

후배의 사회적 지지는 전반적인 특성과 관련하여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표 19〉에서 보면 약물사용 정도에 따라 후배의 사회적 지지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p=.027$). 비행청소년은 대개 본드를 중심으로 흡입하나 이를 포함하여 그 이상을 사용하는 청소년일수록 사용하지 않는 청소년에 비해서 후배로부터 가치를 인정받고 존중되는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유형에서는 예우적 지지($F=5.043$, $p=.007$)와 수단적 지지($F=4.903$, $p=.008$)만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조사대상의 청소년은 예우적 지지에 대한 지각을 왜곡하여 받아들이지 않나를 생각하게 되며 이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인지적 모순을 바로 잡아주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남기고 있다.

후배의 사회적 지지 역시 약물사용경험 정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표 20〉에서 보면 음주 정도에 따라 지지수준이

$p=.01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즉 음주량이 많을수록 후배의 예우적 지지와 수단적 지지의 수준은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약물사용과 음주는 거의 같은 형태로써 청소년에게 작용되는 것이며 비행집단에서 선배는 후배에 대한 소위 ‘모범’을 보여줌으로써 연대의식을 강화시키고 집단을 유지해 나가는 전형적인 특성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표 20〉 음주정도별 후배의 사회적 지지에 대한 차이

음주경험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P
없음	14	16.78	5.563	4.316	.015
적은 편	38	21.71	7.647		
많은 편	90	22.22	6.016		

4) 공식적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

이 연구에서의 대상인 보호관찰청소년은 현재 수강명령을 전문상담기관으로부터 이행 중에 있으며 이행 전의 대인관계로부터 얻는 사회적 지지를 알아 보았고 또한 조사된 사회적 지지는 대인관계로부터의 자원으로 한정하였다. 이 연구목적은 수강프로그램을 통하여 임상사회사업가들의 공식적 사회적 지지로부터 얼마나 도움받았는가를 청소년 스스로의 주관적 보고에 의해 평가해 보았으며 이러한 공식적 지지는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의 수준들과 어떠한 차이가 있나를 살펴보고자 한다.

보호관찰 청소년이 이번의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얻은 도움의 정도를 〈표 21〉에서 살펴보면 청소년 자신의 학력수준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p=.001$). 즉, 중증 퇴에서 공식적 사회적 지지를 통해 도움받은

〈표 21〉 학력별 공식적 지지에 대한 차이

학력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P
중 졸	20	36.90	5.457	6.126	.001
중 중 퇴	32	42.84	4.174		
고 졸	34	40.41	5.909		
고 중 퇴	45	40.99	5.154		

결과를 더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M=42.84$), 중졸에서 도움받은 결과가 가장 낮게 평가되고 있다($M=36.90$). 그리고 고졸과 고중퇴는 중간 수준의 도움을 받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제안되는 실천적 함축은 일차적으로 중퇴자를 위한 프로그램으로써 더 적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학력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세분화시킬 수 있으며 예방적 차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점은 비행 청소년이 학교로부터 정학 및 퇴학처분을 받기 전후에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도움을 얻도록 해야하며 학교적응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원조해 주어야 한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비행청소년의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대처방안에 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서 청소년의 스트레스가 그 결과로서 우울성향을 보일때 스트레스의 대처자원의 하나로 비행청소년의 사회적 지지가 관련변수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사회적 지지를 알아보기 앞서서 청소년의 스트레스를 살펴보면 약물사용의 정도와 어머니의 학력과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즉 약물을 사용하지 않거나 2가지 이상 사용할 때보다 1가지 정도 사용할 때 청소년의 스트레스는 높다. 이러한 경우 대체적으로 약물을 점차적으

로 다양하게 사용함으로써 약물남용의 심각한 수준으로 이행한다고 한다면 약물사용의 초보적 단계는 상습단계보다 스트레스를 더욱 야기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를 가족관계와 고려할 때 부모자녀관계의 요인으로 인하여 지각된 스트레스는 가정의 역동적 분위기의 요인으로 인하여 지각한 스트레스보다 유의수준으로 본다면 더욱 심한 스트레스의 차이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약물을 사용하는 비행청소년은 가정분위기보다는 부모자녀관계에서 더욱 스트레스를 지각하고 이를 해소하고자 약물을 사용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들은 어머니의 학력이 낮을수록 스트레스의 정도는 높아 지는데 두 변수간의 매개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자신의 학력수준을 고려할 수 있다. 청소년의 개인적 스트레스는 학력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p=.048$). 즉 장애에 대한 걱정과 자신의 진로방향에 대한 고민은 학업을 마친 청소년이 학업을 중도탈락한 청소년보다 스트레스를 더 느끼고 있다. 특히 중졸에서 스트레스가 가장 높고, 중중퇴가 가장 낮게 보여주고 있다. 중중퇴의 경우는 장애와 진로에 대한 포기를 의미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수준이 낮을 것이며 중졸의 경우는 좀더 장애를 위해 고민하는 상황에 놓였기에 지각하는 스트레스의 수준이 높을 것이다.

우울성향도 스트레스와 마찬가지로 약물사용 정도와 자신의 학력과 밀접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우울성향의 차이는 청소년 자신의 학력과 약물사용정도에 따라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청소년 학력이 중졸, 고중퇴, 중중퇴, 고졸의 순으로 차이를 보여주는데 학력이 중간수준일 때 우울성향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신체둔화적 우울성향에 있어서 약물사용 정도에 따른 차이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면 신체적으로 나타난 우울성향을 벗어나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써 사용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학력에 따라 사회계층 이동과 사회진출기회를 고려할 때 다소 부족한 감을 지니어 영향받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우울성향의 하위유형에서보면 청소년의 종교와 가정의 월소득에 따라 긍정적 우울성향의 차이를 보인다. 이는 Kessler(1982)가 사회경제적 지위를 결정하는 교육과 월소득의 두 가지 측면은 개인의 심리적 복지에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여 교육수준과 월소득이 높은 사람일수록 우울수준이 낮다고 보고한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차이를 보여주는 것은 우울성향에 대한 교육과 소득의 영향은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과 부유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비교했을 때, 생활을 통제하기 쉽기 때문일 것이다. Ross와 Mirowsky(1989)가 주장한 바와 같이 생활에서의 통제변인이 우울성향을 줄여주는 것은 개인이 스스로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어 이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희망을 갖기 때문이다. 사회적 지지면에서 지지는 사회사업실천에서 중요한 기법의 하나로 인 정되어 왔다. 이러한 지지는 전문적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청소년의 생활에서도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과의 대인관계를 통하여 지지를 주거나 받으면서 지낸다. 물론 수단적 관계에서도 지지를 받게 되는데 예를 들면 위인전을 읽음으로써 스스로 용기를 갖게 되고 명랑성을 유지하게 된다면 이는 분명히 지지를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지지에 있어서 하위변수별로 살펴보

면 아버지의 사회적 지지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속성과 관련하여 아버지의 직업에 따라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자영·관리·전문직에서 높게 나타나며 특히 망 지지와 예우적 지지는 관리직에서, 정서적 지지는 자영업에서, 수단적 지지는 전문직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아버지의 지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은 학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부부의 결합도 역시 학력수준과 상관있음을 볼 때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아버지의 직업이 전문·관리·자영업일수록 지지수준이 높으며 서비스·노동·무직일수록 지지수준이 낮다. 그러나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는 아버지의 경우와는 달리 월소득에 따라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가 달라지는데 월소득이 높을수록 지지수준이 높고 월소득이 낮을수록 지지수준이 낮다. 어머니가 가정에서 표현적 수단의 기능을 지낼 때 소득이 높을수록 가정의 안정도는 높아지면서 청소년에 대한 지지수준 역시 높아지고 있다. 형제의 사회적 지지는 형제수와 아버지의 직업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형제수가 세 명일 경우와 아버지 직업이 노동·무직일수록 지지수준이 높다.

교사의 사회적 지지는 청소년의 학력이 높을수록 지지수준이 높아지고 있으며 친구의 사회적 지지는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음주경험 정도가 많을수록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비행청소년이 음주를 통해 친구와의 교제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선배의 사회적 지지는 연령과 음주경험 정도에 따라 차이를 보여 주는데 연령이 17세 때 많고 17세 보다 많을수록 지지수준은 떨어진다. 16세 이하에서 지지수준이 낮은 것은 아직 선후배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조직에 소속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음주사용 정도가 높을수록 선배의 지지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후배의 사회적 지지도 역시 약물사용 정도와 음주사용 정도가 많을수록 지지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행청소년은 친구와 선후배간의 친밀성이 아주 높음을 알 수 있고 주로 비행행동을 야기하는 집단에 소속되어 있거나 대인관계의 질을 가족보다는 가족밖에서 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가 높은 변수를 가족의 내부에서 찾아보면 아버지의 직업이 자영·관리·전문직이고 부모의 학력이 높으며 월소득이 높은 집단이지만 예외적으로 형제의 지지는 아버지의 직업이 노동·서비스·무직일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가족의 외부에서 친구·선배·후배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양상은 음주를 많이 할수록 친구와 선후배의 사회적 지지가 높으며 약물사용 정도가 많을수록 후배의 예우적 지지가 높다.

이상에서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비행청소년이 지각하는 스트레스와 같은 정서를 관리해주고 나아가 더 이상의 비행행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것이 또 하나의 대처자원으로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 이 중에서 이러한 사회적 지지를 얻도록 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의 하나인 사회기술 훈련은 1970년대부터 활용되었다. Hollin(1990)이 주장하듯이 비행청소년은 충동성, 역할획득, 사회문제해결과 같은 인지과정이 덜 발달되고 도덕적 논리가 미성숙하기 때문에 인지적 행동수정 프로그램을 통한 사회기술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청소년에게만 사회기술을 제공하게 된다면 효과의 지속성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청소년의 우울성향과 비행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스트레스는 부모와의 관계로부터 영향을 받기때문에 부모 역시 부모역할기술 등을 포함한 사회기술이 부족할 수 있다. 그래서 청소년을 위한 보다 효율적인 사회기술 훈련은 청소년과 그들 부모와 함께 시행되는 상호적 사회기술 훈련이 바람직할 것하다. 물론 조사결과를 보면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는 친구나 선·후배를 통해서도 얻을 수 있으나 이는 비행집단에 속한 대인관계이기에 우선적으로 가족의 질적인 부모자녀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청소년은 가족으로 거절되었다는 지각과 감정을 지니고 있을 때 비행행동은 빈번히 자주 일어나고 따라서 가족의 밖에서 사회적 지지를 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 고 문 헌

- 김향초(1989), “심리사회적 요인을 중심으로한 청소년 우울증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13호, pp.116-136
- 박종원(1982), “청소년 정신장애환자의 생활사건에 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21(4), pp.587-594
- 윤진·최정훈(1989), “청년기의 정신건강문제와 그 대처행동양식,” 「한국심리학회지」 제2권 제1호, p.19
- 이길홍·장동산·민병근(1985), “한국청소년의

- 불안 및 우울성향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분석, "「중대의대지」 제10권 4호, pp.494-511
- 윤재운(1985),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다양화 및 그 시행방안," 「청소년범죄연구」 제3집, pp.68-69
- Auslander, G.K. and Litwin, Howard(1987), The parameters of network intervention A social work application, *Social Service Review*, pp.305-318
- Brownell, A. and Shumaker, S.A.(1984), "Social support: An introduction to a complex phenomenon", *Journal of Social Issues* 40(4), pp.1-9
- Carlson, J.A.(1982), "Unmasking masked depression in children and adolescents",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37, pp. 445-449
- Connaway, R.S.(1988), and Gentry, M.E., *Social Work Practice*, New Jersey; Prentice Hall.
- Coulshed, V.(1988), *Social Work Practice: An introduction*, Hampshire; Macmillan, p. 117
- Dnuham, J., and Jones, R.(1980), "Understanding adolescence," In R. Jones and C. Pritchard, *Social Work with Adolescents*,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pp.11-49.
- Germain, C.B.(1979), "Introduction: Ecology and social work," in C.B. Germain(ed.), *Social Work Practice: People and Environment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Germain, C.B.(1973), "An ecological perspective in casework practice," *Social Casework* 54, pp.323-330.
- Germain, C.B.(1984), *Social Work Practice in Health Care*, New York; The Free Press.
- Gottlieb, B.H.(1983), *Social Support Strategies; Guideline for Mental Health Practice*, Beverly Hills; Sage Publications, pp.209-213.
- Hepworth, D.H.(1986), and Larsen, J.A., *Direct Social Work Practice; Theory and Skill(2nd ed.)* Chicago: the Dorsey Press, 1986.
- Hollin, C.R.(1990), *Cognitive-Behavioral Interventions With Young Offenders*, New York: Pergamon Press.
- Kessler, R.C.(1982), "A disaggregation of relationship between socioeconomic status and psychological distres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7, pp.752-764.
- Larson, R.W.(1988), and Brandney, L., "Precious moments with family members and friends," in Robert M. Milardo(ed.), *Families and Social Networks*, New York; Sage Publications, pp.110-114.
- Offer, D., Marohn, R.C., and Ostrov, E.(1979), *The Psychological World of the Juvenile Delinquent*, New York: Basic Books.
- Robertson, J.F., and Simons, R.L.(1989), "Family Factors, Self-esteem, and Adolescent Depress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 pp. 125-138
- Ross, C.E., and Mirowsky, J.(1989),

“Explaining the social patterns of depression: control and problem solving or support and talking?”,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0, pp.206-219.

Shoemaker, D.J.(1990), *The Theories of Delinquency: An Examination of Explanations of Delinquent Behavior* (2nd e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pp.47-78.

Tolman, R.M., and Rose, S.D., “Teaching clients to cope with stress: The effectiveness of structured group stress

management training,” *Journal of Social Service Research* 13(2), pp. 45-67.

Whitney, D., and Rose, S.D.(1990), “The effect of process and structured content on outcome in stress management groups,” *Journal of Social Service Research* 13(2), pp. 89-104.

Windle,M., Miller-Tutzaner, C., Barnesand, G.M., and Welte, J.(1991), “Adolescent perceptions of help-seeking resources for substance abuse.” *Child Development* 62, pp.179-189.